‘여수시 드론 배송’ 하늘 길로 배달 음식 나른다

섬 지역 10곳에 생필품 등 배송
긴급의약품, 배달음식도 함께
11월 말까지 물류 취약지 시범
“다양한 서비스 지속 제공 노력”

여수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물류 취약지인 섬 지역에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물류 취약지인 섬 지역에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배송지역은 송도, 대·소두라도, 대·소횡간도, 제도, 상·하화도, 금오도 등 관내 섬 지역 10곳으로, 10월 중에는 섬 특산품인 전복을 역배송하기 위해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배송 물품은 5㎏ 이하의 생필품, 긴급의약품, 배달음식 등으로, 구역별로 주1~2회 배송한다.

이용자는 배송앱(여수플라이)이나 배송사업체 전화로 주문·예약 후 도착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지정된 배달점에서 찾으면 된다. 배송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가 올해 2년 연속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4억원을 확보한 결과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된 시스템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돌산 진모·작금항, 화정면 개도에 배송거점(드론이·착륙장, 관제)을 설치하고, 배달점(물품수취시설), 드론상황실 등 기반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비행로 및 안전관리시스템, 배송앱 개발 등 배송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축했다.

시는 앞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23년6월~25년6월)’으로 지정돼 스마트 해양관리, 고중량·장거리 물류배송 등 고도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인 드론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이 배송물품 무게도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해 물류취약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력해 드론배송 지역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편리한 신 배송체계로 자리잡아 갈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기간을 거쳐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가 정착되면 의약품 배송 등 긴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여 생활 전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마린페스티벌’ 내일부터 세계박람회장서

여수시가 7일부터 1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5회 해양소년단리갓타 with 2024 여수마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7일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팝페라 공연팀 ‘아리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해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 축제 등이 이어진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제35회 해양소년리갓타 수상기능경기대회’와 ‘제4회 여수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가 치러져 카약, 카누 등 선수들의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터보트, 바나나 보트, 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어드벤처’와 투명부채·지비츠·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부스가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와 부산진구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상호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부산진구,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동참

여수시와 부산진구 직원들이 서로의 지역발전과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상호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양 도시가 지난 6월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자는 공감대를 모아 진행됐다.

참여 직원들은 상호 기부와 더불어 영·호남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모든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이경기 기자

브릿지의료인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수 화정면 개도에서 45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섬마을 건강지킴이”… 브릿지의료인회 의료봉사

브릿지의료인회(대표 정성남)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여수 화정면 개도리 화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45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리적으로 의료혜택이 취약한 섬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전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봉사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37명과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의과·치과·약대 재학 중인 대학생 57명으로 내·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10개의 진료과목으로 구성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시내에 있는 병원에 나가 치료를 받고 와도 배를 타고 다시 집에 오면 또 몸이 아파 힘들었는데, 개도까지 직접 찾아와 진료해 주니 자식보다도 더 마음씨가 곱다”며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성남 대표는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니 이번 봉사활동이 굉장히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욱더 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공항 소음피해 지원 공모에 ‘주민 여행 지원사업’ 선정

여수시가 한국공항공사 주관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소라면 남해촌마을, 율촌면 구암2구 여행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주민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공항 소음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모를 신청·준비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약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 여행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